

정릉야책

정릉 마을잡지 2021.no.08





표지 | 코로나19를 계기로 환경에 관한 이슈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님을 직시하게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만 아직은 미비하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책이 시급하고 중요한 가운데
여기, 성북구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시시콜콜 별일있어 산다

- | | | |
|----|---|-----|
| 7 | 지구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가게
순환지구, 여기 있습니다 | ANN |
| 14 |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지금 당장, 기후정의!”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이선임 대표를 만나다 | 김해경 |
| 20 | 〈369마을을 찾아서〉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이상훈 대표를 만나다 | 나오늘 |
| 32 | 성북구의 채식식당, 가볼까? 1
빌라 드 코스테스(Villa de COSTES) | ANN |
| 35 | 성북구의 채식식당, 가볼까? 2
비건 아이스크림 카페 ‘아케미(ACHEMI)’ | 이혜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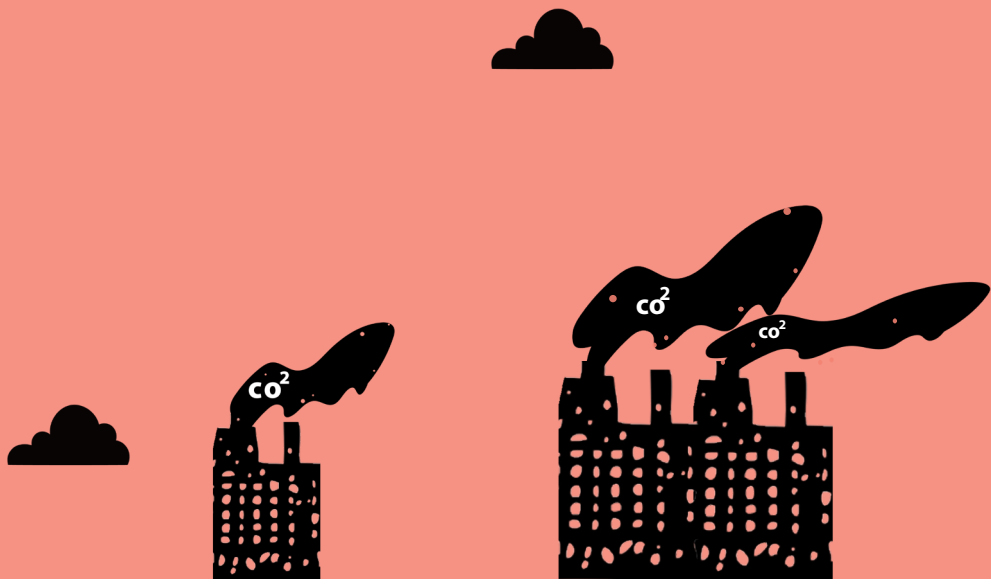
스색스색 마음을 스치다

- | | | |
|----|---------------------|-----|
| 39 | 돈키호테 | 함동갑 |
| 44 | 의무감과 의미부여 | 권남옥 |
| 48 | 페이스북 사용에 관한 철학적 사유 | 선종욱 |
| 53 |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 수업을 듣다 | 김은순 |
| 58 | 나란히 앉아 | 정다운 |
| 66 | 봄전령 외 1편 | 김진태 |
| 74 | 사랑과파랑과금기와, 비주열 | 김수정 |



소리조리 값이 파고들다

- 81 한 청년 이야기 김희진
- 86 마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어디에 문 두드려야 할까? 원박지
- 91 기본을 지키는 운동2 - 호흡을 살리자 임균
- 97 2021 성북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소개합니다
젠더거버넌스 시민활동가 팀
- 106 안녕하세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입니다



역사적 순간을 살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역사 그 자체에도 '역사적 순간'이라는 것이 있고, 역사라는 것이 이미 긴 시간이기에 '역사적 순간'도 인간에겐 꽤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게 된다.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 또한 천차만별이겠으나 지금 이 순간 한반도 거주민들 모두는 아마도 우리 모두 역사적 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의 책임처럼 어느 날 자고 일어나보니 선진국의 국민이 되었으나, 전두환을 옹호하고 국민을 개 취급하는 이들의 역사 발목잡기, 진보 꺼꾸러뜨리기 또한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오 하느님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라는 기도문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슬아슬한 역사적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역사적 순간을 어느 누가 피할 수 있으랴? 올해 내내 우리 동네 정릉

또한 이 역사적 순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작년의 한 공론장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으로부터 올 초 성북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출범하더니 우리 동네 또한 기후위기비상행동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노조라는 것을 여전히 인정치 못하는 낡은 굴레와의 싸움도 치열했다. 그랬으니 개인들의 고민들 또한 깊어졌고 치열해졌으리라.

그런 깊고 치열한 개인들의 고민이 어느 호보다 이번 <정릉야책>에는 많다. SNS에 대한 철학적 사유부터 청년과 중년의 진로와 성장에 대한 얘기들 등등 이 역사적 순간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글들이 많다.

개인 차원의 고민을 넘어 마을단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려는 고민 또한 치열했다. '성북기후 위기비상행동' 대표와의 인터뷰 및

‘369마을’의 이상훈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이러한 마을단위의 고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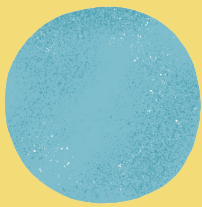
이번 <정릉야책>에는 마을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고민도 담아보려 했다. 많은 이들이 아시듯 정릉복지관에서는 노사분규가 거의 270일 가까이 벌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 간의 관점 충돌도 치열했었기에, 각 당사자들 중 투쟁의 표면에 가장 많이 노출돼있던 노조와 시설장의 입장을 지면에 올리하고자 노력했다.

최근의 몇 년만큼 요동쳤던 시대도 드물었던 것 같다. 코로나 파동을 지나며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한반도 민중들의 운명도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페미니즘 기반의 사회적 각성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았고, 지구상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야 우리도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짙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 세상을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정릉야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새로운 세상에 맞는 <정릉야책>에 대한 고민도 덩달아 깊어진다.

이런 격랑 속에서 편집 또한 글쓴이의 글맛을 날 것 그대로 살렸다. 격동의 시대를 날 것으로 맞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이라.



시시콜콜
별일 없이
산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가게
순환지구, 여기 있습니다



인터뷰이 김진경(순환지구 대표)

인터뷰어 ANN



들어본 적 있는가? 성북구 동선동에도 드디어 제로웨이스트 상점이 생겼다는 소문 말이다. 마포구에 있는 유명한 어느 가게에 이어 드디어 성북구에도 환경을 위한 가게가 생겼다니. 반가움은 둘째고 지구를 위해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입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동선동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 숍 ‘순환지구’의 김진경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다.

순환지구란 어떤 가게인가?

순환지구는 방문하는 분들이 직접 가지고 온 용기에 곡류/향신료/가공식품류/세탁&주방세제 등을 원하는 만큼 소분해서 구매하여 포장재 외의 쓰레기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최근 성북구에도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생겼다는 입소문이 상당하다. 오픈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가게의 입지나 방문객들에게 변화가 있었나?

그렇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매일 놀라고 있다. 정식 오픈하기 전 순환지구 SNS 계정을 통해 소소하게 가게 준비 과정을 소개하고, 화장품 용기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 ‘화장품 어택’의 수거 거점으로 참여했었다. 그러면서 성북구 내에서 진짜 오랜 기간 실천하고 계신 실천가분들이 순환지구를 알게 된 것 같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분들이 오픈 당일에 방문해서 응원까지 해주고 가셨다. 아마도 그 분들 덕분에 순환지구가 생소한 가게임에도 조금씩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게 아닌가란 생각을 한다.

요즘은 오픈한 지 7개월 차 되어가다 보니 점차 동네 분들에게도 어떤 가게인지 알려져 이 분들의 방문이 더욱 늘고 있다. 특히 동네 빈임을 확인하는 모습은 빈 세제 용기를 손에 덜렁덜렁 들고, 슬리퍼 신고 편한 옷차림에 오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더욱 반갑고, 특히 ‘순환지구가 지역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가 느껴진다.

순환지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제로웨이스트 가게 창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환경이 나의 생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 산과 바다 가는 것을 즐기는데 요즘 쓰레기들로 인해 나의 놀이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먹고 싶은 식재료도 양이 많아 먹다 남아 버리는 게 싫어 구매를 포기하기는 것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하는 일들이 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다 작년 제로웨이스트 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공간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환경 관련 활동가나 기존 실천가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환경을 위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점이 순환지구 운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창업 초기에 그랬던 청사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현재는 어떠한가?

가게 계약 한 날 순환지구에서 하고 싶은 일들, 들어 놓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며 가게 스케치를 했었다. 오픈 초기에는 정말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거라 딱 필요한 물품만 조금씩 들여놨었다. 그 때는 “와~ 이만하면 오픈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오픈 때 사진을 지금 보면 저렇게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오픈했다고 알렸다는 게 부끄럽더라. (웃음) 지금은 그 때보다 물건이 더욱 다양해졌지만 처음 상상했던 모습이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아직 다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도 혼자 욕심 부리지 않고 찬찬히 계획한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

순환지구에 들여놓은 상품들 중 적극 홍보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는가?

한 번의 쓰임으로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쓸모 있게 해주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좋은 기업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생산자가 생산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매장에 입점한 두 곳의 기업을 소개하고 싶다.

첫 번째는 천연비누를 만드는 기업 ‘라라어스’다. 유기농 국산 밀 같이 환경과 우리 몸에 좋은 원료들로 천연비누를 만드는 브랜드이다. 또한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제품 포장에 대해 항상 고민하며,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두 번째 기업은 ‘차카다 페어트레이드’다. 유기농, NON GMO, 공정무역 재료를 사용하여 돌고 돌아 두유와 블루베리 잼을 만드는 기업이다. 특히 ‘차카다 페어트레이드’의 경우 물류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서 쉽게 포기하기 힘든 온라인 및 홈쇼핑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차카다 페어트레이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

지금은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 다른 곳과 연계 활동은 하지 못하고 지역 내 친환경 관련 제품을 만드는 단체의 제품을 찾아 매장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는 정도만 하고 있다. 앞으로 여유를 찾고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면 성북구 내 많은 분들과의 '환경, 삶, 관계'를 주제로 한 연계 활동을 하고 싶다.

순환지구는 제로 웨이스트, 리사이클, 업사이클링 등을 적극 권장한다. 대표님의 어떤 철학이 순환지구에 묻어나고 있는 지 궁금하다.



삼십대 초반에 잠시 외국을 나갈 일이 있어 가진 것들 중에서 최소한의 옷만 남기고 모든 물건을 다 처분했었다. 그 때 “아! 이 많은 것들 없이도 살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 그 뒤로 최소한의 물품만 갖춰 놓고 사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새 제품보다 낡고 오래된 빗바랜 사물과 공간에서 매력을 더 많이 느낀다. 그래서인지 오래된 집에 살며 중고 제품을 고쳐 쓰고, 친구들과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나눠 쓰며, 갖고 있는 물건을 손때가 묻어날 정도로 오래도록 쓰는 것 같다. 아마도 이런 삶의 모습과 취향들이 순환지구에서 ‘공유공구’와 ‘중고그릇’ 그리고 손님들이 가져 온 물품을 나누는 ‘나눔상자’를 통해 보여지고 있지 않나 싶다.

순환지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에는 어떤 게 있나?

아무래도 제형이 기존 제품이랑 달라서 그런지 고체 치약과 삼푸바와 설거지바 같은 천연비누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거 같다. 개인적으로 순환지구에서 제일 좋아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분 코너를 소개하고 싶다. 소분 코너는 직접 가져온 용기에 원하는 만큼 1g부터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용기를 재사용 할 수 있는 점에서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가장 적지 않을까 싶다.



순환지구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간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나?

단순히 환경을 위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동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기해야 했던 작지만 소중한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서로 응원하고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진경 대표의 따뜻한 취향이 듬뿍 담긴 순환지구에는 지금의 환경에 대한 고민과 신념이 가게 곳곳에 묻어나고 있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길을 걷기란 쉽지 않다. 몸소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기에, 지구의 미래는 덜 절망적이지 않을까. 지구의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당장 에코백과 빈 용기를 들고 가게를 방문하도록 하자. 지속가능한 환경운동을 위하여, 우리의 직접적인 실천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이다.

순환지구_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25길 8 1층
인스타그램 @soonhwan_jigu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지금 당장, 기후정의!”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이선임 대표를 만나다

인터뷰이 이선임(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인터뷰어 김해경

트로이의 마지막 왕 프리아모스의 딸인 카산드라는 트로이 목마 안에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어서 트로이가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모두 그 말을 무시했다. 결국 트로이는 함락되어 멸망했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매주 금요일에 학교에 가는 대신 스웨덴 의회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1인 시위를 했다.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탄소 배출 등의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2020년 성북구 마을 공론장 주제가 기후위기였다. 몇 명이 공론장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뭐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학습과 회의를 시작했다.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오픈 채팅방과 피켓팅 등으로 종횡무진하고 계신 이선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 기후위기 문제 어떻습니까?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를 불러오고 물가 폭등을 야기해요. 캘리포니아 산불,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등지에서의 폭우와 홍수 모두 기후위기와 연관 있다고 하죠.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홍수 때문에 세계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면 전쟁과 난민이 발생하고 식량주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기후위기는 다른 나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우리의 문제인데요, 성북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나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휩싸이던 2020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칭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준비위원회가 발족했어요. 2021년에는 온라인 오픈채팅방도 열었어요. 이와 같은 장이 펼쳐지면 성북지역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공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매달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에 기후위기 캠페인을 벌여요. 금요일 오후 6시~7시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피켓팅을 하고 토요일에는 한성대입구역 분수마루 인근에서 현수막 들고 거리행진을 해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식은 무엇인가요?

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인다고 지구가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8년 안에 대전환이 필요





해요. 빙하는 예상보다 빨리 녹고 있는데 지난 30년 넘도록 변한 게 없어요. 우선 시민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시급해요. 공론장 전개는 이를 위한 단초예요. 탄소중립 관련 정부 정책도 너무 미약해요.

가령 ‘그린 워싱’은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시늉만 내죠.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생산하는 수소로,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소인데 전 세계 수소 생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어요. 수소라고 다 친환경이 아니랍니다. 원자력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서 친환경이라고 얼핏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자력 폐기물 비용,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희생 등을 간과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탄소배출 수치만 줄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예요. 환경정책, 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되고 기업, 정치인이 먼저 나서서 책임을 져야죠.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대기업은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가졌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정치인에게 기후위기 극복 대책을 요구해야죠.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필요해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요. 빠르고 편한 자전거 도로 등의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행동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미국의 선 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Movement)는 미국 민주당 후보가 환경문제를 이슈로 다루도록 이끌었어요. 우리도 선 라이즈 무브먼트처럼 정당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난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 기본법'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선 라이즈 무브먼트의 사례처럼 정치인들이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책 비전을 내올 수 있게 정치에 개입하고 성북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행정과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비상행동의 몇 분께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교육에서부터 햇빛발전소를 세우는 일까지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북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만 년 전에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 공룡이 멸종했다. 오늘날 우리도 기후변화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경제 등의 시스템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현실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공룡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렇게 외친다. “지금 당장! 기후 정의”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369마을을 찾아서〉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이상훈 대표를 만나다

인터뷰이 이상훈(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인터뷰어 나오늘



어스름한 저녁노을이 서울을 감싼다. 빠르게 왕래하는 사람과 자동차들로 가한 전형적 도시의 모습, 한성대 입구역. 하지만 그 풍경 뒤 작은 골목으로 발길을 내딛어 높은 언덕에 오르면 다소 새로운 모습이 펼쳐진다. 바로 서울을 둘러싼 한양도성, 고즈넉한 성곽 길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성곽아래는 꼭 모두 다른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게 지어진 집들이 빼곡히 모여 언덕 마을을 이루고 있다.

서울의 성곽, 일제강점기 이후의 혼란과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농촌에서 많은 이들이 살길을 찾아 도시로 삶의 터를 옮겨왔다. 너무 많은 이들이 한 번에 서울로 쏟아지고 집터는 부족해지자 이들은 성곽 아래 남아있는 언덕땅에도 판잣집을 짓고 터를 잡기 시작했고, 그렇게 ‘토막촌’ ‘달동네’로 불리게 되는 마을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되었다. 물리적 여건상 다른 주택가들보다 집들은 더 옹기종기 모여 붙어 지어져있고 그 사이 골목들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내려 스스로의 발로 걸어야 이 집과 저 골목에 닿을 수 있다.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관계의 파스함과 연결성이 더욱 강하게 존재하던 곳, 누군가에겐 ‘가난함의 상징’으로 마음 한 구석 아픔으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곳은 서울의 가장 넓은 하늘과 풍경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많은 언덕마을들이 ‘재개발’과 ‘현대화’란 이름으로 허물어졌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던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살길을 찾아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공동체는 사라지고, 연결은 끊어졌으며, 집은 허물어졌다. 깨끗한 개발이란 명목 하에 그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던 연대성이나 보존 가치는 고려되지 못한 채 마을과 사람들은 한 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다행이 도시재생이란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성곽마을들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현재 개선되어 유지되는 성곽마을들이 몇몇 남아있게 되었다. 그 중 한 곳이 바로 이곳, '369마을'이다.

성곽까지 오르니 넓은 서울의 야경과 함께 무척 운치 있는 카페가 나타난다. 오랜 주택을 개조한 모습에 넓은 마당을 가진 '마실'이란 이름의 카페. 이곳에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중심 역할을 해오셨다는 한 분을 만나뵙기로 하였다. 바로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의 소장 이시기도 하신 이상훈 대표님이다. '건축사와 성곽마을. 과연 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얹혀 펼쳐진 것일까?' 마을 부녀회에서 만드셨다는 상큼한 '청귤청' 에이드를 마시며 369마을에 대한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369마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우선 저희 마을 이름 소개부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9는 '재개발 삼선 6구역'으로 이 지역이 지정되어 불렸던 명칭의 앞글자를 딴 것이예요.



또한 '마을의 정체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화합한다 - 이 3가지 가치를 가진 언덕'이라는 뜻이 담겨있기도 하지요.

이곳은 주민분들이 힘을 합쳐 요구한 덕에 재개발 지역으로부터 해제될 수 있었어요. 현재는 마을의 물리적 형태는 보존하면서도 환경을 개선하고, 또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커뮤니티 공동체의 관계성과 자립성을 높이는 마을로 만들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2018년까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 오래된 주택과 거리 등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후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조직된 후 2019년에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조합은 '1기 서울시 지역관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제적이고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내 집수리 관련 기술자 분들이 모여서 '도성하우징'이라는 협동조합도 조직하여 운영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 다시 소개하도록 하죠!

대표님의 역할과 마을과의 연을 맺으신 계기?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마을 주민이고요! 일로서 이 마을을 접하게 되었지만, 2015년에 본격적으로 살면서 알아가고 싶어 이사를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이란 자리에 있기도 한데 직함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업무들을 유연하게 하곤 합니다.

저는 우선 '이상도시'라는 건축사사무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도시건축가 인데요, 2014년 이 마을에 대한 재개발 대안 연구 공모를 내었다가 입선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곳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주민분들과 만나고, 조직하고, 사업을 구축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의 건축적인 개선사업 등에서 설계도 맡아 진행하였고요. 지금 우리가 차를 마시고 있는 이 카페도 제가 리모델링한 것인데, 멋지지 않나요? 하하.

처음엔 저도 건축을 전공하고 그저 보통의 졸업생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갔죠. 개발시대의 하수인이랄까요? 대기업과 관에서 주도하는 하향식 도시설계에 몸을 담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30대 중반에 '건축이란 무엇인가?'란 본질적 의문이 들면서 막연함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깎이로 대학원에 들어가 다시 공부하였는데, 그때! 저는 '눈을 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전환점을 만난 것 같습니다. 사람, 장소, 시민참여, 사회적 경제, 마을 이란 단어들과 상향식 커뮤니티방식의 건축과 도시 만들기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때가 마침 패러다임이 전환되던 시기였죠. 그것을 보면 저는 무척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길에 굉장한 흥미와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강동구 서원마을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첫 정식 건축설계 의뢰를 받고, 그것을 계기로 건축사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이곳 삼선동과 연을 맺으며 369마을과 함께 성장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과 369마을의 지향점?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이란 단어를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생소한 단어로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이 곳곳에서 진행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이 개념이 도입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아 아쉬운 문제점들이 남기도 하죠. 간단히 말해 '쇠퇴화 되어가는 지역을 단순히 삭제해버리는 개발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재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방향은 바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입니다. ‘로컬 브랜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아주 멋지고 탐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진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여 다시 지역 주민과 자원에 환원시키는 것. 사회운동적 시각만으로 접근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동력을 잃거나 지원에 기대게 되어 자생구조를 갖지 못하여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을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계속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69마을을 조사한 결과, 지역적, 인적 역량상 ‘문화예술 콘텐츠’가 마을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파악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다양한 주체들(지역주민, 문화예술단체, 인근 대학교와 청년, 지역 예술가)들을 잇고 그 안에서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그렇게 해서 지역 내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통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자원개선 등 지역 환원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지역에서 시작하여 지역으로 돌아오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을 공유공간과 구체적인 사업들 소개

우리 마을엔 4개의 거점공간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유연한 공유공간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모두 다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곳, 카페 ‘마실’입니다. 이 곳은 상시 운영되어 수익활동을 하면서 마을의 중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야외마당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별이는 예술상점(프리마켓)이나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어요. 마실의 특별한 점은 커피보다는 부녀회 주민분들이 직접 생산하신 과일청 음료를 주력으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이 참여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랑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식당이기도 하지요.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어르신 분들을 위한 무료식사가 제공되고 있어요. 저희 회사 식구들도 월요일은 점심식사를 하여 지역에 기여하는 중이죠. 단체로 예약하실 경우 부녀회와 논의하여 식당을 오픈하기도 하고 대관을 하기도 합니다. 식당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회의가 열리는 커뮤니티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실 옆에는 ‘예술터’라는 가변공간이 있는데요, 이곳도 오래된 주택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며 정겨운 느낌을 남겨둔 곳이죠. 전시, 공연 등 다양



한 문화 예술적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주민 뿐 아니라 대관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마을과 관련된 활동이거나 지역 혹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환원되는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작은 일도 꼭 마을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술공방'이 있습니다. 3개의 다락방과 1층의 공유공간으로 이루어진 작업공간이에요. 3명의 작가들이 따로 또 같이 예술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레지던시 공간이지요. 입주기간은 6개월씩이지만, 논의를 통해서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과 시간을 통해 예술가가 더욱 깊숙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주체가 되어 함께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작가들은 작업 외에도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을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운영하는 것 외에 예약제로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있습니다. 코스가 4가지나 있죠. 부녀회, 예술인, 문화해설사, 그리고 저 이렇게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식사, 체험, 해설,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마을을 다양한 감각으로 깊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자체적인 공간운영과 탐방 프로그램 외에도 기부금을 받아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 활동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 뜻을 함께하는 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많은 분들께서 믿고 후원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후원자들에게는 초대, 행사 할인 등으로 보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369마일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마을은 건물 313동 925세대, 약 2000명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이 마을에 누가 사는가?'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 생각했어요. 처음엔 지원이 없던 상황이라 자비로 지하방에 상담소를 마련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면서 8개월 동안 주민 300여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시간 동안 제 진심과 노력을 마을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알아주신 것 같아요. 반대를 하지 않는 것도 큰 긍정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뢰를 얻은 덕분인지 마을 사업 과정 동안 반대하시는 분들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묵묵히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도로와 노후건축물, 치안 시설 등을 개선, 보완하는 물리적 정비가 시작되었어요. 마을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었죠. 이어진 2단계에서는 사람을 엮고 구성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23인이 모여 마을계획단을 만들어 공동체 구성의 기초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3단계에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분화했습니다. 원주민 어르신들 중심으로는 '주민공동체운영회'를 만들어 전체적인 마을 사업의 방향을 구성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맡기고, 실제적인 손발이 되어 사업의 실행을 맡아갈 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서 젊은 청년과 더 활동적인 인력들이 실제 사업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었어요. 긴밀히 연계되면서도 관리와 실행주체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한거죠.

대표님과 마을, 각자가 향해가고 싶은 모습은?

저는.. 음,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까요? 건축가이기도 하지만 퍼실리테이터, 커뮤니티 디자이너, 동행, 교육, 자문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똑딱 결혼적 건축물을 주문 생산하는 자가 아닌 사회적 정의와 실천적 가치를 제시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나! 하하.

마을이 꿈꾸는 모습은, 역시 자족적이고 지속가능한 곳이 될 수 있는 마을의 토대가 되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 마을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그것이 다시 마을의 공공서비스로 환원되는 구조요. 369마을이 아주 ‘핫’하고 멋진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점점 더 사람도 모이고 일도 만들어지고 잘 돌아가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 인원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애향심이죠. 주민 3명이면 마을을 일군다고 하죠. 모든 것에서 언제나 ‘지역’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정말 이 곳을 사랑하고, 무언가를 이 곳에 기여하고 싶고,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현재 우리 마을은 성장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369마을을 사랑하는 다양한 내부, 외부 사람들과 계속 손을 잡고 마을을 천천히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합시다!

뜨거운 시간이었다. 상큼한 청귤청 에이드 향처럼 이상훈 대표님의 이야기에는 마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강하게 녹아있었다. 그의 긴 설명을 듣고 나니, 지금 앉아있는 마실이란 공간과 마을 골목 곳곳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369마을이 아름다운 성곽마을로서, 또 문화예술과 젊음의 기운이 가득한 살고 싶은 동네로서 조만간 많은 이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게 될 것 같은 것은 나만의 예감인가! 스스로 마을을 만들고, 마을에서 일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마을의 재미나고 가치 있는 일들로 돌아오는 순환구조. 이런 마을들이 많아지는 진짜 ‘이상도시’를 꿈꿔보며 오늘의 인터뷰를 마친다.



성북구의 채식식당, 가볼까? 1

빌라 드 코스테스(Villa de COSTES)

정리 문지원

성북구에서 비건, 채식식당을 찾아가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가게가 굉장히 한정적일뿐더러, 메뉴 선택의 폭도 넓지 않다. 그러던 중, 검색의 힘을 빌려 알아낸 비건 레스토랑. 월곡에 위치한 채식식당, 빌라 드 코스테스(Villa de COSTES)를 방문했다. 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월곡



역 2번 출구에서 성북보건소를 향해 걷다가 보건소를 지나쳐 모퉁이를 돌면, 아늑한 분위기의 가게가 나타난다.

빌라 드 코스테스는 채식지향의 카페&비스트로인데, 비건 메뉴와 더불어 고기를 넣어 만드는 요리도 있어 메뉴 옆에 그려진 작은 풀잎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게의 특이한 점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문 시 참고하도록 하자.

비건 코코넛 파스타와 이달의 파스타를 주문했다.

이달의 파스타는 샐러드 오일 파스타였는데, 샐러드는 미니 양파로, 상콤쌉쌀한 맛이 강렬한 비건 파스타라고 한다.

채식주의를 위한 식단을 생각하면 꽤 거창할 줄 알았지만, 사실 일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저 맛있는 파스타인 것이다. 육류를 사용하지 않아도 매력적인 맛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비건 파스타들이 외치는 것 같았다.



이달의 파스타
(샐러트 오일 파스타)



비건 코코넛 파스타

비건 코코넛 파스타 : 코코넛의 매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키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듯 유니크한 맛을 선호한다면 비건 코코넛 파스타가 꽤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파스타에서 너무 도전적이고 싶지 않을 땐 가장 많이 찾는 토마토 파스타 딱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껏 비스트로에 왔는데 일반적인 토마토 파스타를 고르기엔 망설여진다면? 바로 비건 코코넛 파스타를 고르면 된다. 새콤한 토마토소스 맛 위로 면을 감싸며 코로 올라오는 코코넛의 향은 색다른 풍미로 혀를 자극한다. 파스타소스가 다소 묽은 편이기 때문에 면을 먹을 땐 소스와 더불어 소스 속 재료가 어우러지도록 하여 먹으면 좋다.

이달의 파스타(샐러트 오일 파스타) : 오일 파스타를 좋아하는 이에겐 샐러트(미니 양파)이 좋은 포인트 음식이 될 것이다. 졸인 토마토 오일 소스를 머금은 면과 함께 샐러트를 입 안에 넣는다면, 흔한 오일 파스타가 아님을 느낄 것이다. 불길을 스친 양파는 언제나 그렇듯, 풍미가 상당하다. 오일 파스타의 느끼함에 쉽게 지치는 편이라면, 면을 먹다가 샐러트만 집어먹어도 좋다. 샐러트만의 고소한 맛과 더불어 씹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성북구의 채식식당, 가볼까? 1

비건 아이스크림 카페 ‘아케미(ACHEMI)’



정리 이해성

비건 카페를 찾는 과정에서 길음동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름은 ‘아케미(ACHEMI).’ 아이스크림 연금술사라는 뜻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본연의 맛을 살리며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길음역 8번 출구로 나와서 쪽 걸어가다가 네 번째 골목으로 올라가면 아케미가 위치해 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매장은 크지 않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고 있노라면 사장님께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해 주신다. 주문에 앞서 메뉴의 종류가 다양해서 신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제주 흙당근 아이스크림 케이크



크렘브뤼레

메뉴를 소개해보자면

‘애플망고-레몬밤’, ‘다크초코 브라우니’, ‘논산 딸기 파이’,
 ‘쭈크&팔 오메기’, ‘블루베리-라벤더’, ‘충북 괴산-흑임자 웡심이’,
 ‘바질 라임’, ‘헤이즐넛 초코 크런치’, ‘초코칩 베트남 연유커피’,
 ‘강원도 찰강냉이 카라멜’, ‘라즈베리 로즈&히비스커스’,
 ‘메이플 바닐라 크렘브뤼레.’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커피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 이곳은 국내산 유기농 현미를 사용하고 우유, 생크림, 계란 등 동물성 원료를 넣지 않는다고 한다. 계절 채소 및 과일을 사용해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고 하니 계절별로 아이스크림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다.



쭈&팥 오메기, 다크초코 브라우니

우리는 ‘쭈&팥 오메기’, ‘다크초코 브라우니’ 아이스크림과 ‘제주 흙당근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리고 ‘크렘브뤼레’를 주문했다. 맛은 메뉴마다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느껴져서 재밌고 단맛 또한 인위적이지 않아서 만족스러웠다. ‘제주 흙당근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쫄쫄하고 당근 맛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져서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던 메뉴였다. ‘크렘브뤼레’는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고 한다. 맛을 보기 전에 시각적으로 즐겁고 두들겨서 깨 먹는 재미도 있었다.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찾는다면 ‘아케미(ACHEMI)’를 추천한다. 아이스크림 밖에도 다양한 디저트를 만나볼 수 있으니 디저트를 좋아한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기를.

아케미(ACHEMI) : 서울 성북구 송인로2길 82



스삭스삭
마음을
스치다



돈
키
호
테

함
동
갑

이웃집에 사는 나이 많은 남자를 삼촌이라고 불렀었다. 족보에 없는 이웃삼촌을 더욱 친밀감을 주기 위해 그렇게 불렀던 듯싶다. 서른 중반인 삼촌은 형보다 더 신(神)의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 삼촌의 손에 낫과 칼이 쥐어지면 뭐든지 멋진 장난감이나 동물인형으로 똑딱 만들어졌었다. 나에게 만들어준 장검도 그랬었다.

어느 날 해변에 떠밀려온 배를 만드는 튼튼한 나무판자를 운 좋게 주운 나는 엄마가 가마솥에 삶아 놓은 고구마 두 개를 꺼내 삼촌을 찾아가서 바쳤다.

삼촌은 고구마를 먹는 모양부터 특이했다. 위아래 꼭지를 먼저 입으로 베어 내뺄고는 대나무를 반으로 갈라서 만든 접시에 올려놓고 입술에 고구마 살이 묻지 않게 대나무젓가락으로 먹는 모습이, 역시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것 같았다. 삼촌이 다 먹은 것을 확인한 나는 주워온 나무를 바쳤다. 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고구마를 다 먹은 삼촌은 장인의 도구인 듯 보이는 날카로운 칼과 낫을 꺼내들고 나무를 깎기 시작했고 그의 손에서 신들린 듯 움직이는 낫과 칼은 휘황한 빛을 뿜으며 내 눈을 꿈쩍 못하게 붙들었다.

음력 2월 초봄, 양지바른 곳에서 나의 애검(愛劍)은 그렇게 탄생했다.

칼을 허리에 찬 나는 두려울 게 없었다. 엄마가 장보러 갈 때 쓰는 붉은 색 보자기를 찾아 망토로 목에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지 지나가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나를 향해 엄지를 세워주었고, 손아래 동생뻘 되는 아이들은 부하라도 되는냥 뒤를 졸졸 따랐다.

친구들과 뛰놀던 공터 입구에 항상 으르렁대던 멀대 형네 바둑이도 꼬리를 사리고 집에 기어들어갔고, 그 집 옆을 지나가면 갑자기 나타

나 기습공격으로 쫓아대던 털보 아저씨네 칠면조도 대문간에 꼬리만 내 놓고 벌벌 떨고 있었다. 기울어가는 해도 점점 더 붉게 나를 비쳤고, 초봄의 쌀쌀한 바람도 더욱 멋지게 내 망토와 옷깃을 휘날려 주었다.

친구를 찾아가 나의 애검을 뺏내자 친구도 보라는 듯 집으로 들어가더니 장검을 가지고 나왔다. 그 장검은 친구를 골목대장으로 만들어준 명검이었다. 이윽고 두 전사 사이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휘잉.....’

바람에 메마른 플라타너스 잎이 흩날리자 친구가 옛날 장군처럼 말했다.

“어떠냐? 나의 장검이 더 멋있지 않느냐? 하하하!”

“이것은 나의 신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뺏내지 마라!”

나도 칼을 뽑아 들고 맞섰다. 이윽고 두 용맹한 전사는 전투를 시작했다. 나는 용감했다. 그 근처 골목대장 자리를 2년 동안 휘어잡고 있을 만큼 내로라는 덩치인 한 살 위의 친구와 싸우면서도 맹위를 떨쳤다. 넘쳐나는 자신감에 지치지도 않았다. 나의 용맹에 위압된 듯 나뭇잎들이 부들부들 떨며 흩날리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도 얼어붙은 듯 날지 못했다. 나를 따라왔던 부하들은 나의 용맹함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어느 덧 두 전사의 발등에는 검정 고무신의 테두리에 앉은 먼지가 말라 굳어가며 검은 띠가 생기고, 그렇게 수십 합을 나누던 나는 문득 내 칼이 허공을 베는 느낌을 받았다. 보니 친구의 칼 중간 부분에 작은 웅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해서 부러져버려 짧아진 만큼 칼끼리 부딪치지 못하고 내 칼이 허공을 벤 것이었다.

친구는 충격을 받은 듯 부러진 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말은커녕 나의 조롱하는 말도, 공터를 쪼뼛 울리는 부하들의

함성과 내 승리의 웃음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모습은 개선장군은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웅의 모습이었다. 갈 때는 서녘이었던 부하들이 곱절로 늘어나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주었고, 서쪽 바다로 기울어 가던 태양도 영웅 같은 내 모습을 보려 멈춰 섰다. 또 지나가는 형들이며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박수를 치며 수건을 흔들어 주었다.

“장군은 칼을 보듬고 자는 것이 아니여. 알았제?”

집에 도착하자 아빠의 말쑥이 생각났다. 나는 칼을 놔둘 만한 적당한 곳을 찾다가 부엌에 있는 시렁에 단정히 눕혀 놓고 잠을 청했다. 생각할수록 뿌듯하고 설레었다.

‘태산처럼 믿음직한 나의 애검.....’

그렇게 주문을 외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칼을 보러 갔다. 그런데 분명 시렁에 얹어 놓았던 칼이 없어졌다. 깜짝 놀랐지만 나는 이미 영웅이 되어있었다. 어느 때 같으면 벌써 눈물이 앞섰을 터인데 놀란 중에도 이내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때 큰누나의 말이 들려왔다.

“이것 비땅으로 좋다야!”

비땅이나 비지땅은 부지깥이의 전라도 사투리다.

나무뿔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나무의 줄기나 가지로 된 장작 형 뿔감과 하나는 나뭇잎으로 된 낙엽 형 뿔감으로 낙엽 형 뿔감은 부지깥이로 불길을 순간순간 뒤집고 다듬어 주어야 연기도 많이 안 나고 화력이 더 좋아진다.

누나는 지금 낙엽 형 땀감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었다.

나의 애검은 그렇게 아궁이의 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한 몸을 희생하고 있었고, 가마솥에는 구수한 밥 김이 무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멀대 형네 바둑이는 뒤뜰에 묶여 있었고, 털보 아저씨네 칠면조는 배탈이 나서 문간에서 일어서질 못했다고 한다.

의
무
감
과

의
미
부
여

권
남
옥

“바로 그런 부담감이 산책을 할 때
더 예민한 감각으로 산을 느끼고 바라보고 듣게 했다.
나만 즐기는 산책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나는 쫓기는 자처럼 급하게 거닐었다.”

글쓰기 커뮤니티에 내 글을 공유하는 날이다. 글을 쓰고 낭독을 마쳤다. 여유롭게 여러 번 녹음을 해도 크게 우수해질 것 같지도 않다.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다. 낭독하다보니 잘못 발음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거슬렸다. 다시 녹음하고 싶지만, 시간 안에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대로 녹음은 마쳤다. 글은 이미 써서 블로그(사이버 공간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두는 일)을 해 두었다. 녹음한 것은 당일 아침에 단톡(카카오톡 단체 채팅 사이버 공간)에 공유하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길에 올랐다. 여유롭게 나왔으니, 자락길을 한 바퀴 돌았다. 산책은 언제나 기분 좋다. 특별히 매일 산책을 하고, 산책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블로그할 때의 산책이 가장 행복했다. 강이랑 작가의 이야기처럼, 나누면 더 커지는 기쁨이 돌아서 나에게 회귀하던 시간이었나 보다. 작성한 100일의 산책글쓰기의 시간이 지나고 혼자서 산책의 기쁨을 느끼다 보니 오히려 지긋이 누리지 못했다. 산책할 때의 상쾌함이 금세 흩어져 버리니 산책을 슬그머니 건너뛰는 날도 늘었다. 어느 날, 어깨가 결려서 보니 벌써 며칠이나 산책을 건너뛰었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거나 열이 많은 사람은 일부러라도 운동을 해 주어야 편안하다. 매일 산책을 하고 블로그를 할 때는, 나날이 새로운 것을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뭐 그리 대단한 것을 길어올려 글을 쓸지 막막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담감이 산책을 할 때 더 예민한 감각으로 산을 느끼고 바라보고 듣게 했다. 나만 즐기는 산책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나는 쫓기는 자처럼 급하게 거닐었다. ‘얼른 한 바퀴 휘~ 돌고 출근해야지, 혹은 어디까지 후딱 갔다가 집에 돌아가서 식사 준비를 해야지.’ 하는 식이었다. 산책이 아티스트 데이트가 아니라 정말 필수적인 활동, 해치우면 그만인 활동처럼 취급되었다. 물론 무목적(無目的)적으로 산책을 해도 아름다운 노을에 잠시 숨을 멈추고 가만히 바라보기도 하고 지저귀는 새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가을에 핀 희고 작은 들꽃과 새끼손톱의 반도 안 되는 꽃잎을 몇 잎 달고 있는 올망졸망한 들꽃에 시선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그만 흘러가 버린 순간처럼 금세 내게서도 잊히고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았다.

“가장 즐거운 놀이 같은 활동이었던 걷기,
그 산책이 노동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글을 써서 공유하는 주인공이었던 날이다. 아침 산책을 하고 출근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갔다. 그러고 보니 핸드폰이 없다. 그 말인즉슨, 핸드폰에 붙어 있는 즐겨 쓰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능을 하는 카드를 두고 왔다는 뜻이고, 내가 공유하기로 한 시간에 글을 제대로 공유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잠깐 멈칫했다. ‘핸드폰 없이 하루를 살아볼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하지만 어젯밤 낭독한 녹음이 핸드폰에 있다.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서 핸드폰을 챙겨 나와야겠다. 살짝 땀이 나게 산책을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버스정류장 근처의 개천가를 조금 더 걷다가 몇 정거장 뒤에 버스를 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시 집까지 오가는 거리만큼의 걷기 활동이, 갑자기 노동처럼 느껴진다. 별안간 걷기는 노동이 되었다. ‘도대체 언제 집까지 갔다가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온다지.’ 걷기가 산책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울무처

럼 되어버렸다.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온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더 걷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걷기에 의무감이 더해지니 완전히 노동이 되어버렸다. 가장 즐거운 놀이 같은 활동이었던 걷기, 그 산책이 노동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해골물을 마신 원효대사가 느낀 것이 이와 비슷했을까? 내 마음에 따라, 같은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울무처럼 느끼는 내 직장도 그 무거운 의무감만 치워버린다면 재미난 활동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내 적성에 맞거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두런 두런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과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하는 그 시간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인다면, 의무감이 아니라 내 의지로 받아들인다면, 그 시간이 달라질까? 같은 활동이 갑자기 달리 느껴질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져도 이 직장을 떠나지 않으니, 이제는 이곳에서 의미를 길어 올려 보자.

철학적 사유
페이스북 사용에
관한

선*
종
욱

*정릉1동 주민자치회 교육위원장, 정릉동 마을방송 대표

나는 SNS 사용자로서 이것의 좋은 점과 싫은 점을 변증법 식으로 비판해보려고 한다. 나는 SNS 중에서 페이스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블로그나 카페보다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친구라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친구는 모든 이에게 열린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동년배를 의미하지만 서구권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여 말이 통하면 모두 친구이다. 여기서 SNS는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 그것이 SNS의 인기를 끄는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사용자들에게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욕망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기도 하다. 실제로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댓글 혹은 ‘좋아요’의 숫자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다. 그만큼 내가 타자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세 가지 소외 즉 생산, 노동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소외를 이야기하였는데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

나는 페이스북을 처음 사용할 때는 친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연결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친구신청을 클릭하였다. 그래도 친구 천 명 정도는 있어야 창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욕망이다. 다른 사람들도 친구를 많이 갖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는 욕망이다. 사실 이 욕망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을 나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라캉이 말하는 대로 “나의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욕망”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된다. 타인의 욕망을 따라 살면 자신의 주체성이나 정체성은 사라지고, 자신의 초자아를 돌아볼

여유도 사라진다. 내게 비어있는 것을 추구하려는 에로스적 욕망만 있을 뿐이다. 친구가 많아지면 나름대로 만족하는 나르시시즘적인 사고에 빠질 수도 있다.

SNS의 좋은 점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다. 꼭 찾고 싶은 친구를 자동으로 찾아주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소통하게 해 주며, 멀리 있는 친구와 친지들과 짧은 시간 내에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게 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계정신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SNS가 좋은 점을 갖고 있다 보니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친구관계는 더욱 많아진다.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고 사람들은 시간을 사용하여 SNS를 소비하고 있다. 즉 SNS도 일종의 기호소비로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SNS 사용은 텅 빈 무엇을 실재하는 것처럼 소비하는 기호가치 소비가 될 수 있다.

변증법은 일단 부정해야 한다. 그러기에 나의 페이스북 사용에 대하여 부정해 보아야 한다. 나는 페이스북을 자주 사용하다 어느 순간 회의가 들었다. 페이스북 때문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닌데 페이스북에 접속하면서 나의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 때 나는 생각했다. “아하, SNS가 시간을 잡아먹는 하마로구나!” 들뢰즈가 말한 대로 나의 주체는 없고 욕망하는 기계만 남았다. 나는 그 때 나의 욕망과 시간 사용을 성찰하였다. 소위 말하여 제한적이거나 나에게서 aporia가 일어난 것이다.

사실 SNS는 생산보다는 소비가 훨씬 더 많다. 나의 정보를 올리지는 생산 활동은 매우 적고, 다른 사람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게다가 여기에 자본이 모여들고 있다. 광고와 자기 PR이 올라온다. SNS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여 다른 이

의 정보를 구매한다. 직접적으로 지불하지는 않지만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시간을 주고 구매한다. 광고와 PR은 다른 이의 구매를 위하여 자기를 포장한다. 여기에 외화가 일어난다. 수많은 사용자들이 다른 이의 정보를 보려고 여기저기 개인프로필을 떠돌아다닌다.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유목민이 있는데, 나는 디지털 유목민이 된 것이다. 들뢰즈는 유목민이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적은 소유를 가진다고 한다. 사실 페이스북에서의 나의 소유는 아무 것도 없다. 그냥 이동하기 편리한 방식만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을 디지털 유목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SNS를 사용하지만 사실 회의적인 시각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정신을 뺏는 것 같고, 자신만의 사유와 철학할 여유를 뺏고 있다고 본다. 자아상실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조차도 페이스북을 탈퇴했다고 한다. SNS는 사람의 진정한 비판 기능을 뺏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판이라고 해봐야 자신과 다른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정도만 있을 뿐이다. 사유하고 성찰하며 비판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짧은 글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또 친구로부터 비판보다는 긍정적 반응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총체성을 파괴하고 한쪽만 더 커지게 하는 기형으로 만들 가능성이 SNS에 보인다.

SNS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둘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좋은 점을 취하되, 적당히 사용하고 적당히 소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SNS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세계정신을 갖고 하고, 건전한 비판기능이 가능한 언론의 기능, 사람의 총체성을 강화시켜주는 기능, 자신의 초자아를 타로부터 인정받는 기능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마다 무의식적이고 지나친 소비로 인하여 자신의 정신을 타자의 욕망의 노예로 전락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는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어렵다면 SNS와 답쌓고 사는 기간 혹은 시간을 정해봄이 어떨까? 만약 국가와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일정시간 서버사용을 금지한다면 그것이 권력의 남용이나 포퓰리즘에 해당할까? 그것이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시간이 있다면, 주체적으로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최소한 타자의 욕망에 사물화 되어가는 자기 내면의 모순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이스북에 자주 접속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독서 리더

동아리 양성

수업을

듣다

김은순

매주 수요일 8주 수업으로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 수업>을 듣고 있다. 오늘까지 6회를 들었고, 2회만 남은 상태이다.

이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여 년 전까지만 해도 7년 넘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늘 뭔가 부족하고 책을 읽고 나서도 정리가 되지 않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자괴감이 들기도 했으나, '책을 읽지 않는 것 보다는 낫겠지'라는 믿음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독서 모임을 하게 되었다. 물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모임을 내가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책을 읽고 회원들 간에 그냥 소감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논제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랐고, 모르니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태였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

첫 번째 수업은 '독서토론의 리더'로서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질문하는 독서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다. 늘 책을 읽으면서 수긍만 하면서 수동적으로 읽었었는데, 질문하는 독서라니……. 정말 내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 되었다. 예전에 <메모 독서법>을 읽으면서도 그동안 나의 독서법이 정말 엉터리였고 잘못됐었다는 것을 실감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쉬이 바뀌지 못했지만)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같은 독서가 아님을 이제야 깨닫고 나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두 번째 수업은 지도 선생님께서 준비해온 논제로 그림책 <여우>와 <리디아의 정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리디아의 정원>은 시대적 배경까지 생각해보면서 그림책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림책이었기에 읽는 것에 부담이 적었고, 초보자로서 독서토론을 시작하는데 무리는 없었다.



세 번째 수업은 권여선의 <안녕, 주정뱅이>를 읽고 진행했는데 이 책 또한 단편이어서 일주일 안에 읽는데 부담은 없었다. 주어진 논제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책을 자세히 파악하며 주인공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네 번째 수업부터는 직접 논제를 만들어야하기에 부담이 가득했다. 책은 카프카의 <변신>이었고, 처음 도전한 논제 만들기였기에 중압감은 너무나도 컸다. 게다가 예전에 읽다가 내용이 불편했고, 읽는데 속도도 나지 않고, 책의 깊이를 파악할 수 없어서 결국 중도에 읽기를 포기하고 처박아 두었던 책이었다. 그런데 논제를 만들어야 하니 열심히 읽게 되었고,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가치나 소통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 번째 수업에 읽은 책은 이금이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하와이로 떠나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고단 했던 삶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의 공감능력이 뛰어난 건지..., 마치 내가 하와이로 떠나는 것처럼 힘겹고 두렵고 벅차 했다. 그들은 강인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곳곳하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다. 나의 나약함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더 힘들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여섯 번째는 <달콤한 노래>였다. 제목과는 달리 내용의 시작은 섬뜩하기 까지 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양하고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내용의 책이었다. 어려운 육아에 대한 이야기부터, 개인의 주체성을 지닌 삶이라든지……. 그러나 이런 불편한 진실 속에서 읽는 내내 힘들고, 힘들었던 만큼 오래 기억될 것 같은 책이기도 했다.

두 번 남은 수업은 아직 진행 전이지만, 그 동안 읽었던 문학이 아닌 사회과학책인 김누리 교수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와 교양 인문학 책인 신영복 교수님의 <담론>이 남아있다. <담론>은 두껍고 내용이 어려워서 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 처음부터 나누어 읽기를 하며 필사를 하고 있다. 아마도 이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담론>이란 책을 알고만 있었지 결코 읽어 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직 읽는 중이지만, 인간의 관계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며 잘 읽고 있어서 기쁘다.

처음 시작한 낯선 이들과의 수업이 분명 쉽지 만은 않았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뿌듯함이 있다. 자유 논제, 선택 논제를 말만으로 힘겨워 하던 내가 이제는 책 속에서 논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좀 더 꼼꼼히 책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 의심을 한다. 고민을 한다. '왜 이런 거지?', '이 부분은 논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면서 말이다.

2회 남은 수업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 바라며, 나의 독서력이 성장했음을 믿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읽고, 삶에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
란
히

앞
아

정
다
운

코로나가 들끓처럼 번지고, 발이 묶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2년간 꾸준히 그림을 그렸다. 소일거리로 시작한 일이 생활이 된 것이다. 그림책을 좋아해서 작은도서관에서 몇 년 책 놀이 수업을 했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그림책의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시 연필과 붓을 들었다. 그러던 차에 도서관에서 작은 그림책을 만들었다. 얼떨결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림책을 만들던 당시의 생생함이 잊히지 않아 계속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자라게 되었다.

그림책을 만들려면 우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거리두기로 가까운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지루해하고, 답답해하는 12살 아이를 돌봐야 했는데, 아들이 우연히 만난 길고양이와 친해지며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그리웠던 아이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잘 따르는 길고양이를 친구 삼아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고양이의 엄마가 된 것처럼 그의 물과 먹이를 챙겼다. 잘 살펴보니 동네에는 아들처럼 길고양이를 아껴서 살뜰히 보살펴주는 분들이 많았다. 그렇게 고양이와 연결된 아이는 점점 더 많은 동네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겨울이 깊어지니 우리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에 길고양이가 무사할 것인지 늘 걱정하게 되었다. 아들은 박스를 구해와 여러 번 고양이 집을 만들었다. 박스로 만든 집은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 버릴 때도 있었고, 비가 오면 다 젖어버려 쓸 수 없게 되었다. 아이는 고양이 집을 다시 만들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없던 투명 비닐을 댄 창문도 생겼고, 뒤에 접었다 펼 수 있는 먹이를 넣고, 뺄 수 있는 장치도 덧붙였다. 박스가 비가와도 젖지 않도록 비닐을 사방으로 감싸주고, 안에는 담요와 수건에 쿠션까지 넣어 주었다.

무엇보다도 고양이가 지루해 하지 않도록 투명 OHP 필름을 이용해 만들었던 창문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는 고양이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거라며 창문을 통해 나뭇가지를 이용한 연극을 보여줄 거라고 했다. 어떤 대상을 이렇게 순수하게, 정성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다니. 나는 이런 아이와 고양이의 모습에 반해 버렸다. 그래서 둘의 사진을 찍어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들의 이야기를 쓰고 난 후에는 이를 작은 그림과 글로 한 장면씩 담아내는 손톱스케치(썸네일)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혼자 작업하다 보니 이 단계부터 잘 풀리지 않아 한참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 즈음 그림책창작워크숍 공고를 보게 되었다. 보통은 유명 출판사에서 워크숍을 열고, 그 과정을 마치면 졸업 전시회를 연다. 이런 자리를 통해 눈 밝은 편집자를 만나면 그림책을 출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꽤 고액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런 과정은 비전공자자가 처음부터 도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 워크숍을 알게 된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소개서, 그림책 제작기획서와 그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응모했다.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서 가기는 참 어렵다. 나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과 이를 도와줄 선생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워크숍에 합격하여 5월부터 그림책 기획, 글쓰기, 원화작업에 인디디자인까지 그림책 전반에 대해 배우고, 만들 기회를 얻었다. 글 작업을 가르쳐 주셨던 달달북스의 이달 대표님은 출판사에 투고 할 때 보낼 글부터 후에 출판될 그림책의 홍보기사 작성하는 법, 자기소개 글쓰기, 유사/경쟁도서 조사, 내 책이 놓일 서점 매대의 위치, 분야 찾기 등을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해보고 글 작업을 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내가 봐온 그림책이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있는 단아한 배우의 모습이었다면 이 과정에서는 그 뒷부분, 한 편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두루 배우는 것이었다. 매주 과제를 하고, 20명의 참가자가 해온 과제 발표와 피드백을 들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내 옆에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저마다 꽃 피우고 싶은 이야기 씨앗을 품고 있는 성실하고도 빛나는 존재들로 여겨졌다.

글 원고가 마무리 될 즈음 김중석 작가님과 원화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톱스케치도 없이 글로 내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의 열개를 설명했는데 선생님의 첫 반응은 “어렵겠는데요.”였다. 후에 작가님께 “재밌는데요. 재밌게 작업하신 거 같은데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의 첫 반응은 그것과는 꽤 거리가 먼 것이었다. 워크숍 중간에 스토리를 바꾸거나 주제를 새롭게 하여 작품을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아들과 고양이의 우정을 그리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고,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는 나로서는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에서부터 출발해야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 게다가 둘 다 내가 참 사랑하던 녀석들이라 지치지 않고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림책에서 손톱스케치는 여행을 위한 지도와도 같다. 이게 제대로 짜여 있어야만 헤매지 않고 그림책이라는 산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잘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림을 그려본 경험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 단어를 모르면 글을 쓸 수 없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그려보지 않은 것은 필요할 때 인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평소에 다양한 인물, 동작, 사물들을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도 나는 가까이에서 두 모델이 있었으므로 열심히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 습작을 모았다. 고양이의 다양한 모습을 모으고, 그리기 위해 비슷한 이미지와 책들을 많이 찾아봤다. 수업을 같이 듣는 분들 중에 첫 그림책이 곧 출간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과 이야기를 하며 막혔던 부분에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스케치가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럴 때 부분, 부분이라도 그려보고, 한 장면씩이라도 따로 그려 보세요.”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래서 덩어리를 작게 조각내 퍼즐을 만들 듯이 조금씩 스케치에 살을 붙이듯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손톱스케치를 하면서 좀 지나니 선생님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그려오라고 하셨다. 색연필, 마카, 펜, 과슈, 아크릴물감, 먹, 연필 등 여러 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포즈를 한 캐릭터들을 그렸다. 사실 이때가 제일 재미있었다. 과제 검사 때는 2주간 그려온 그림들을 짝 펼쳐놓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았다. 선생님은 그것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최종적으로 작품에 쓸 재료를 권해주셨다. 나는 발색이 좋은 수채 과슈로 그려 보라고 피드백을 받았지만 이 재료가 손에 익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결국 여러 번 실패하고 난 후 손에 익은 아크릴 과슈로 채색 도구를 바꿨다.

원화 멘토링을 해 주신 선생님은 학생들의 그림을 보고 피드백을 주실 때가 참 인상적이었다. “그림 그릴 때 어땠어요? 본인이 재미있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의 작업이 즐거웠는지, 만족하였는지를 물으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다시 질문 하셨다. 이 온화한 물음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쉽거나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쓰시는 어법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질문이 정말로 근사하다고 생각했다. 상대방이 피드백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조약돌을 던지듯 말문을 열고, 마음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 그가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듣는 이를 더 도전하게 만드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필요할 때는 할 말을 꼭 하시는 분이므로 “아, 그림들이 뭔가 좀 그리다 멈춘 것 같아요.”라고 아쉬움을 나타낼 때도 있었고, 허전함을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급조한 그림 속 프레임이나 강조하는 덧칠을 보시고는 “이런 건 정말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되물어 ‘이건 아닙니다.’라고 알려 주시기도 했다. 선생님은 언제나 큰 이야기 속에서 그림이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와 시선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전체적인 책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시선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고치고, 지루할 때는 어떻게 변주해야 되는지 그림 뿐 아니라 글도 꼼꼼히 봐 주셨다. 무엇보다 애 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피드백을 해 주시는 모습은 진정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가슴에 깊이 남았다.

보통은 그림 작가가 원화 작업을 하고 나면,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마무리를 한다. 그렇지만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자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배워 자신의 그림책의 표지와 속지, 본문 디자인을 직접 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정에 마르잔의 북디자이너 김성미 대표님을 만났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오신 선생님께 북디자인을 직접 배울 수 있다니 기쁜 마음이었지만 컴퓨터 작업이 익숙하지 않아 어느 때보다 긴장했다. 그림을 그리고, 글 자리를 잡아 얹히는 작업, 표지, 앞 면지, 본문과 뒷 면지까지 전체의 합을 맞추는 작업은 좀 더 폭넓게 그림책을 바라보게 했다. 또 처음으로 들어갈 글의 서체, 행간, 색 등 지금까지 고려해 보지 않았던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

지금은 작업을 마무리 하고, 11월에 나올 그림책을 기다리고 있다. 워크숍을 하는 동안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작업에 몰두했다.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고, 단계마다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무수한 수정을 거친다는 걸 배웠다. 이 수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곁에서 여러 사람들의 작업 과정을 볼 수 있었다는 점과 작업에 임하는 그들의 ‘다시’라는 태도가 아닐까. ‘당신은 함께 작업 할 친구들이 있나요? 당신의 글이나 그림을 한 번 더 고쳐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오는 목소리에 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봄전령

김진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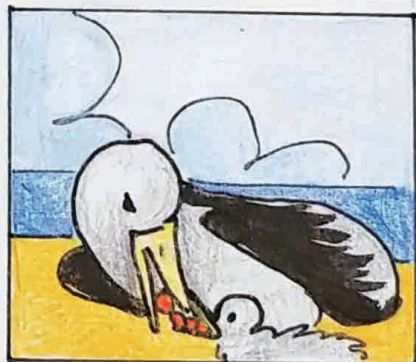
꽃소식 전하려고 봄전령 저산넘어
흰구름 올라타고 실바람 타고넘어
노란꽃 개나리도 빨간꽃 진달래도
푸르른 들판에도 냇가의 벚나무도
새생명 잉태하듯 가지의 꽃봉우리
하얀색 색칠하듯 하얀꽃 흰봉우리

봄님들

김진태

오는봄 막아서는
짓궂은 꽃샘추위
예쁜꽃 피울세라
샘내는 꽃샘추위
어느새 활짝핀꽃
와버린 봄소식에
얼굴만 가리운채
줄행랑 쳐버리네
따스한 봄님들은
잘가라 손흔드네

* 알바트로스는 지금 by 정다운

















사랑과파랑과금기와, 비주얼

김수정

그 모든 것은 하나의 파열이었다.
너는 먹을 수 없는 석류,
차라리 뇌에 가까운

파도들의 명멸

나는 철도원이 아닌데도 혼자서
꾸역꾸역
너를 삼키며 비트 속에서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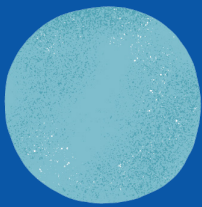
어두워서 좋았다
이인일조가 아니라서 좋았다
어쩌다

서치라이트가 잠시
점심을 먹는 동안은

너의 어둠은 오롯이 내 것이었다
단 한번도 불러보지 못한
내 것이 아닌 이름은

금세 하얗다다가
곧 글썽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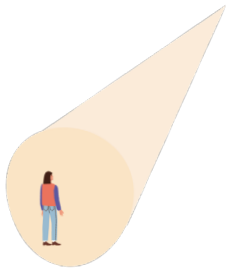




요리조리
깊이
파고들다



한 청년 이야기



김희진

직장에 다닐 때 지인이 하루에 하늘을 다섯 번 보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다. 이 말의 출처를 찾아보니 <꽃보다 청춘 in 아이슬란드>라는 편에서 배우 강하늘 씨가 한 말을 기억하고 지인이 전해준 거였다. 이 말을 듣고 당시 나는 매번 하늘을 하루에 5번 보는 것에 대해 노력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을 보는 시간은 언제나 퇴근길 한 번뿐이었다는 것이었다.

퇴근길에 달을 보며 많이 울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돌계단 위에 앉아 하늘을 보며 한탄하고는 했는데 아마 밤하늘을 의인화할 수 있다면 시끄럽다고 눈을 흘기지 않을까 싶다. 새벽까지 집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아침에는 급하게 출근하고 버스에서 피곤해서 졸고 늦은 저녁까지 직장에 있다가 퇴근하는 하루를 보내는 나에게 여유 따위는 만무했고, 하늘에 대한 생각은 잊히기 충분했다. 여유가 없는 삶에 자괴감도 들고 심술도 났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이 이야기가 다시 기억이 나게 된 것은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였다.

퇴사하고 나서 하늘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여유가 낫설었지만 좋았

다. 주변의 풍경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던 것은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였다.

우리 집은 뒤쪽에 커다란 산을 짊어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파트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나무와 풀이 많이 있었다. 2월 말, 퇴사 후 계절이 지나면서 나무의 변화가 눈에 더욱 잘 보였다. 잎이 떨어진 나무에 어느새 새싹이 돋는 것이 보이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위로가 되었다. 바쁠 때는 잘 보이지도 않던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구나 싶어서 살짝 감상에 젖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득 나는 나를 잘 돌아보고 있나? 고민을 했던 것 같다. 하늘을 다섯 번씩 보며 주위를 둘러보는, 알에서 막 깨어난 거위 같은 내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행복을 쟁취해보자고 생각한 계기였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했다. 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나에겐 평생의 과제와 같은 것이었다. 나의 삶은 언제나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인 삶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도 자각도 없이 삶을 살아왔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었고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다. 오히려 선생님도 교수님도 부모님까지 주변 사람들은 수동적인 내 삶을 ‘착한 아이’라고 이야기하며 좋아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 성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은 직장에 들어가서였다. 직장 사람들은 내가 너무 수동적이라고 했다. 너무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것이다.

일할 때는 능동적으로 눈치 있게 할 줄 알아야 하며 스트레스 자체도 가볍게 넘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나에게 동료가 이런 일은 취미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동료가 물었다. “취미는 뭐야?” 대답을 못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이 뭐야?” 대답을 못했다.

“음식은 뭐 좋아해?” 대답을 못했다. “이 일, 하고 싶은 일이었어?” 대답을 못했다. 어른이 되어 내가 마주한 넓은 세상은 내가 답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다.

내가 누구인지 찾는 일은 너무 막막하였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고 이것과 관련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해보고 싶은 것을 먼저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취미를 찾기로 했다. 실로 만든 가방을 완성해 보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기도 했다. 퇴사 후 많이 떨어진 자존감 회복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해 보자 생각하여 운전면허증을 땀다. 그 외에도 무언가 해보고 싶어 발을 동동거리던 중 ‘오랑’이라는 동네 정보를 모은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쉽지 않았다. 마을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지만 내가 있는 마을에 대한 정보는 고사하고 성북구 활동조차 찾기 힘들었다.

겨우 찾은 것은 성북문화재단의 괴담 문학상이었다. 그 곳에 소설을 보냈고, 내 소설이 당선됐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성공한 일이 많아지고 어느새 7월을 바라보는 푸르른 나무를 보며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찾아보았다.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서 구가 다르기에 프로그램에 못 참여한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극적으로 찾아낸 것은 성북 시민회에서 하는 동네 생활 탐험가라는 프로그램이었다. 탐험가 프로그램은 성북구 동네에서 새로운 일과 관계를 경험하고 싶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관계의 어려움과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싶던 나에게 이 활동은 운명처럼 느껴졌다. 현재 나는 동네 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중이다. 나는 시민회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을 돕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다른 청년

들은 시민회 등의 기타 소속이 없으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내 포래들 또한 자신을 잘 모르며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에 대한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의문인데 있는 것조차 찾기 어려우면 청년은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정릉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마을 in 수다>에서 풀어보았다. <마을 in 수다>는 ‘마수다’라는 친근한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마을의 다양한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을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마침 청년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위의 고민들을 주제로 가져가기 적합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마을은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곳이며 도움을 청하기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나는 마을에서 계속 자라왔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마을에서 보냈다. 친구와 다니곤 했던 마을 놀이터와 음식점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공기같이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 막상 내가 무언가 하려 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자라온 정릉은 마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은 정릉 지역이 마을 사람에게조차 아직 폐쇄성이 짙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는 정릉 지역에 많은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을 많이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시민회에서 활동하면서 알아본 정릉 지역에는 좋은 장소가 많았다.

정릉에서 쉬어갈 풍경이 좋은 곳이나(북한산, 정릉천 등), 정릉 지역 맛집, 정릉 지역에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을 모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렇게 정보를 쉽게 얻도록 검색도 용이하게 하면 주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쉽게 알게 되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을 전하였을 때 어른들은 청년에게 공감하며 위로하였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도 하였다. 가장 흥미로웠던 대안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아예 자신이 기존에 하던 일과 상관이 없어도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간다리 정책을 건의해 주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많이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자신만의 것을 찾고자 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등불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마수다’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와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청년의 행복이 보였다.

청년은 오늘도 자신이 올려다 본 하늘의 횡수를 세고 있다. 행복을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행복하다 우기기 위해서 하늘을 보는 청년들도 아직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알고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무지개를 잡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길에 무지개를 칠하는 청년이 되면 좋겠다. 청년이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마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어디에 문 두드려야 할까?



원박지*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릉권역 반장을 맡고 있는 원박지라고 합니다. 국민대학교를 다니면서 4년 동안 정릉에 있었고 졸업 후 정릉을 떠나기가 아쉬워 학교 교직원으로 1년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대학에서 악기를 전공했지만, 특별히 악기 연주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일단 대학에 가자는 마음만 가지고 입시 준비를 해서 대학에 왔던 터라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연히 음악을 했고 당연히 음대를 왔기 때문에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전공 특성상 연습실에 박혀 연습을 하며 지내야 해서, 자연스럽게 정릉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뺀 하루의 전부를 이곳에서 지내면서 정겨운 동네에 정도 많이 들고, 정릉에서의 많은 기억들을 새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한번 마을에서 일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021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정릉권역 반장

대학교 마지막 4학년 때 “지역문화예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강사로 오신 성북문화재단의 콜라를 만나게 되었고, 콜라가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 문화재단이 하는 일, 지역 활동 같은 것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딱히 와닿는 말이 없더라고요. 무엇이랄도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에 냅다 콜라에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콜라는 반가워하시며 저를 청년살이발전소로 초대해주셨고 그렇게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메뉴판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를 정릉시장에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시장에서 밥을 먹을 때 겪는 불편함을 줄여주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시장 상인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마을 시장 상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그저 매일같이 지나치고 가끔 밥을 사먹고 하던 시장에 뭔가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었죠. 그렇게 인연이 이어져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릉권역 반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최강섭 사서님의 추천으로 정릉도서관에서 진행한 마을 in 수다라는 프로그램에도 발제자로서 참여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그래 재미있겠다~”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랜만에 주목을 받는 자리라 떨기도 했고요.

마을 in 수다에 참여하기 전까지 정릉이라는 마을이 초심자들을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컸어요. 물론 언제든 찾아가면 환영해 주신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콜라에게 메일을 보내기 전까지 저도 그랬으니깐요.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한 이곳에서, 제 이야기에 모두 공감하신다는 점이 일단 제일 감사했습니다. 청년의 고민을 우리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마을활동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과연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는 어른들이었는지 생각이 많이 드신다며 마음이 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구나. 내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길고,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정말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더 이상 학교라는 울타리는 없고, 처음 겪는 일들이 다 막막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일단 해보라고. 일단 한 번 이것저것 함께 해보라고.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최선을 다해볼 것.

아닌 것 같으면 과감하게 그만둘 줄도 아는 것.

거쳐 가는 것이 아닌 이 안에서 어떻게 “정착” 할 수 있을지 고민 해볼 것.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보신 선생님들이 뻗어주시는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손을 잡고 걸어가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저 어떤

일을 하고 먹고 살까요...” 하는 슬픔이 절대 아닌, 저의 고민에 공감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는 그 마음에 감동과 감사, 그리고 작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 났어요.

코트를 훌쩍이는데 한 선생님께서 하트를 크게 해주셔서 또 한바탕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줌(ZOOM) 사용이 미숙하셔서 저와 정릉도서관에 같이 계셨는데 끝나고 나니 울고 계셨고, 가실 때도 꼬옥 안아주고 조만간 또 만나자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연령대가 높은 선생님들이 사용법을 배워서 참여하셨더라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배우신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선생님들이 우리는 이런 기계가 익숙치 못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도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해하는데 소통 창구가 없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세대 간의 소통의 시작 문 앞에 같이 선 느낌이랄까요?

그냥 돈은 돈대로 벌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 애초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속답은 못 찾고 빙빙 돌고 있는 느낌이라 많이 지쳐있었는데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어떤 일을 하고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왕이면 사람들 사는 이야기 속에서 작은 보람을 느끼며 함께하고 싶다는 것.

저는 사람을 무척 사랑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마을은 머무르고 싶은 곳이자 함께 살아가고 싶은 터전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릉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갈 수 있고, 더 알아가고 싶게 하는 곳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비록 아직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고민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물어볼 수 있는, 저보다 먼저 비슷한 길을 먼저 간 분들과 함께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맨땅에 헤딩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는 일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더 나아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알아가는 재미는 언제나 즐거운 거니까요! 이곳저곳 기웃대며 열심히 정릉에 대해 알아가고 또 배우고 싶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동2

호흡을 살리자

호흡이라 쓰고 횡격막이라고 읽는다



임균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와 목소리, 그리고 행동이 여느 때보다 커지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릉야책을 만들고, 많은 활동을 하는 [호박이 닝쿨책]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행동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역시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유행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바이러스의 창궐이 아닌, 기후변화로 생긴 재해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흐름들을 지켜보다 보니, 우리 몸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란 시간 동안 마스크를 하지 않은 날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스크를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마스크일 거라고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스크를 점점 가까이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다면, 마스크가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현상은 바로 [미세먼지]였습니다.

코로나19 직전의 미세먼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며칠씩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의 전조증상으로 볼만큼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기후위기가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이상기후나 해수면 상승보다도 [호흡]이지 않나 싶습니다. 숨쉬기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호흡]을 지켜야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지키는 운동 두 번째 이야기는 [호흡]입니다.

마스크가 일상이라고는 했지만,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은 무척 답답한 일입니다.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잘 차단할수록 성능 좋은 마스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숨을 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답답함의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호흡기능이 발달하지 않았거나(아이), 호흡기능이 떨어져서(노인), 산소 섭취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호흡의 깊이가 얇은 사람일수록 마스크로 인한 산소 섭취량은 적어집니다. 마스크 착용에서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면, 우리의 [호흡]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흡은 우리 삶에서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심장박동이나 혈액순환을 빠르거나 혹은 느리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인체에서 늘 작동하지만, 자의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호흡]이 유일합니다. 심장이 뛰거나 혈액이 흐르는 것도 항시적이지만 조절할 수 없지요.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훈련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조절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훈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 할 만큼 항시적인 작용입니다. 호흡은 몸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신체는 호흡을 통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중요합니다. 삶이 끝나는 날까지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 호흡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건강한 것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일상적인 우리의 호흡은 의도하지 않으면 매우 얇습니다. 훈련을 통해 단련된 운동선수가 아니고서야, 횡격막을 사용하는 호흡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운동하기 전의 필자도 그랬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일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동안 들이마시는 숨은 명치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얇은 호흡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자기의 호흡 정도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흡은 조절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하면서 호흡을 조절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호흡은 24시간 항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거기에 계속 의식을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훈련 말입니다.

그 훈련에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흉부(가슴)와 복부(배)를 나누는 등근 근육막입니다. [횡문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 바로 아래쪽에 위치 해있으며, 척추와 복장뼈, 갈비뼈까지 넓게 펼쳐져 붙어있습니다.

이제는 운동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코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코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코어라는 말은 누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데, 필자는 코어 중에서도 이 횡격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횡격막의 역할은 그저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횡격막은 우리의 호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흡기) 횡격막이 수축하고 흉강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폐가 공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호흡근]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역할도 합니다. 횡격막이 약해지면 호흡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횡격막은 상체를 유지하는 골격들에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형태 때문에, 만성 허리통증부터 소화불량과 목디스크까지, 횡격막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실제로 허리통증 환자에게 호흡훈련을 지속하게 했더니 통증에 호전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등에서도 호흡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호흡을 깊게 제대로 하는 것이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훈련을 한다는 것은 횡격막 훈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마다 하는 호흡법은 제각각 다르지만, 횡격막을 사용하는 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기본을 갖추기 위한 횡격막 훈련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복식호흡이란 말보단 [횡격막 호흡]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식호흡이라는 말은 복부를 쓰는 것처럼 인식되어 배만 불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복식호흡이라 알고 있는 [횡격막 호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갓난아이가 잠을 잘 때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을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잠을 자는 아이의 배가 위아래로 들썩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양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마치 몸통 전체가 풍선처럼 부풀었다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횡격막 호흡]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횡격막을 사용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라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차차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호흡하는 방법으로 훈련하면 됩니다. 자리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거나, 의자에 두 다리를 올려놓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 위에 두고 입이 아닌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호흡을 배꼽 아래까지 보낸다는 느낌으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가슴에 올린 손은 가만히 있고, 배 위의 손이 들썩이게 하면 됩니다. 단, 의도적으로 배에 힘을 줘 부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들이마신 숨으로 복부 앞뒤, 좌우를 공기로 채운다는 느낌으로 호흡하면 됩니다. 내쉴 때는 최대한 천천히, 부풀었던 복부가 조여지는 느낌으로 끝까지 숨을 뱉으면 됩니다.

제대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시면 생각보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기도 어렵습니다. 필자도 그랬습니다. 알아진 호흡으로 오래 생활하다 보니, 한 번에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도 적었고, 횡격막 사용도 잘되지 않았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훈련해야만 좋아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나아집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깊은 호흡을 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것을 호흡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식하면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알아진 호흡으로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당장엔 별 의미 없는 것일지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할 운동과 몸 상태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스스로 호흡에 집중해봅시다.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고 천천히, 횡격막을 사용하는 호흡을 하다 보면, 자신의 몸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눈을 감고 해보면 더 좋을 겁니다. 그렇게 호흡으로 알아낸 통증이나, 불편함을 극복하는 운동을 찾아 시도하다보면, 어느새 기분을 갖춘 몸이 될 것입니다.

기분을 지키는 운동 2번째, 호흡-횡격막이었습니다.

[참고자료]

『들숨근 강화운동이 허리통증과 호흡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2017, 두현지)

〈진정한 코어는 호흡이다.〉. (2015, 민족의학신문, 김지웅)

2021 성북구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소개합니다



젠더거버넌스 시민활동가 팀

1. 시민 활동가 팀에는 누가 함께 했나요?

2021년 성북구 젠더 거버넌스는 ‘나를 돌봄 서로 돌봄, 봄봄’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관심 있는 시민을 모집하여 총 8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나를 돌봄 서로 돌봄, 봄봄’은 지역 여성들과 건강하고 생태적이며 성평등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마을 모임이며, 봄봄 이외에도 페미니즘 독서 모임인 ‘페미라이프’, 청년시민단체인 ‘성북청년시민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함께 합니다.

2. 젠더 거버넌스는 무엇인가요?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는 성인지 관점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자치구의 정책을 점검, 평가하여 제안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의미 합니다. 이때 성인지적 관점은 어떤 정책이 특정 계층 또는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는지, 소외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하며 풀뿌리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및 거버넌스

주체로서 시민사회 역할 증대를 기대합니다. 젠더 거버넌스는 2013년 태동을 거쳐 2017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수행되고 있으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젠더 거버넌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시민 활동가인 '민'과 행정 담당자인 '관'이 올해 살펴볼 자치구의 사업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을 시민 활동가들이 관련 조례, 사업 계획서, 관계자 인터뷰, 현장방문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장 활동을 통하여 사업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정책제안하고 행정 담당자들과 이를 함께 논의하여 사업에 반영하게 됩니다.

4. 2021 성북구 젠더 거버넌스는 어떻게 활동했나요?

활동가 교육, 사전 간담회, 현장 활동 및 자치구회의, 사후 간담회, 젠더 거버넌스 한마당(예정) 순으로 수행했습니다.

◆ 활동가 교육 (4월~5월)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젠더 거버넌스 기본 교육

◆ 사전 간담회 (7월 23일, 길음역 일상공감) : 젠더 거버넌스 사업 소개 및 2개 대상 사업 소개 (성북구 홍보물,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 질의 및 응답

◆ 현장활동 및 자치구 회의

· 자치구 회의(4월~9월 총 15여회 정기회의) : 조례분석, 사업 관련 자료 검토, 개선안 논의 / 멘토링 등

· 현장 활동(8월~9월)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관계 공동체 팀장 인터뷰, 다문화생활돌봄팀 팀장 인터뷰,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2센터 방문)

◆ 사후 간담회(9월 24일, 온라인 Zoom) : 2개 대상 사업 현장 활동결과 발표, 행정과 개선안 논의

◆ 젠더 거버넌스 한마당(11월 11일, 온라인 Zoom) : 2021년 젠더 거버넌스 활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공유

5. 2021 성북구 젠더 거버넌스 결과는 무엇인가요?

25개 자치구 공통과제인 '자치구 홍보물'과 자치구 선택과제인 '건강가정 지원사업 운영' 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 (성북구 홍보물-소식지/블로그)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현장활동 결과 및 개선의견	반영의견
1. 성차별적 온라인 홍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자치법규 개정 시 반영 여부 추후 검토 예정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시민 서포터즈 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 마련	자치법규 개정 시 반영 여부 추후 검토 예정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거나 비율을 명시하도록 보완	자치법규 개정 시 반영 여부 추후 검토 예정
4. 홍보물에 관한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점검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검 진행함
5. 홍보물 담당 공무원, 관련 위원회, 기자단, 위탁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가이드 라인 교육 및 성인지 교육 수행하고 명예기자단이나 사이버기자단의 경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수행	명예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시 성인지 교육을 함께 구성 예정

현장활동 결과 및 개선의견	반영의견
6. 홍보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식지는 만족도 조사를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발간되는 홍보물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홍보자문위원회 구성(예정) 시 블로그 운영 등에 전문가 의견 수렴 예정 (단, 매체 특성 상 신속하게 구성 홍보 사항 포스팅 하여야 하므로, 개별 콘텐츠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은 어려움이 있음)
7. 홍보물 내용에 대한 개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 · 성별 대표성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내용 등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블로그 운영 시, 게재하는 콘텐츠 등에는 성인지 관점으로 제작 ※ 성역할 고정관념 지양
8. 홍보물 기획·특집/기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주간에 양성평등, 젠더이슈에 관한 기획특집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소식지 발간 시 부서내용을 정확히 전달받고 사전 파악(양성평등주간) 개선 의견 고려하여 게재 예정

2) (성북구 건강가정지원 사업 운영)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현장활동 결과 및 개선의견	반영의견
1.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세분화 및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 간의 이해와 통합을 돕는 프로그램 확대 제안 · '양육자'라는 표현 사용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프로그램 계획에 통합가족 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 · 부모를 '양육자'라고 표현 병행하고자 함
2. 가족 대상 프로그램 기획 시 성북구 가족통계(성인지 통계)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기획 시 성북구 가족통계는 사용하고 있으며, 성인지 통계는 추가 활용하고자 함

현장활동 결과 및 개선의견	반영의견
3. 홍보물(일러스트, 문구 등)에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감수 절차 필요 · 서울시에서 발간한 성평등한 홍보물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홍보물 제작	홍보물(일러스트, 문구 등)에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 성평등 홍보물 가이드라인 기준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홍보물 감수하고자 함
4. 홍보의 다각화 · 한글을 모르는 다문화 가정의 이해도 및 접근도 홈페이지에서 다중언어를 지원 ·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필요	· 홈페이지 내 최소 3개국 이상 다국어 홍보물 게시하고자 함(베트남, 몽골, 한국어, 중국 등) · 일반구민 대상 홍보강화를 위해 성북구 주요 커뮤니티, 블로그, 유관기관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홍보처 발굴하도록 함
5.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적합성 · 같은 건물에서 통합 운영 필요 · 접근성 및 이용자 수와 이용자 성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내부 공간 배치와 계획, 주차장 계획,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고려	· 센터 같은 건물에서 통합운영을 위해 2024년 신규통합건물 입주 계획 중에 있음 · 내부 공간 배치의 경우 4층 공동육아, 2층 1인 가구 프로그램, 1층 가족상담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음. 매년 12월 지역주민과 소통의 자리 마련하고 있음
6. 종사자, 프로그램 진행자, 상담사, 동시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종사자(상담사, 통번역사 포함)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진행자(강사)에게는 관련 자료를 배부하여 교육하고자 함
7. 관련 사업(프로그램) 예산에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예산(강사비)을 포함하도록 권고	임신출산갈등상담 내 부모와 자녀대상 성교육 이외 성인지 교육을 2022년 사업 예산 계획시 반영하고자 함
8. 참여자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적극적 홍보	

6. 2021 성북구 젠더 거버넌스를 마치며

◆ 아무것도 모르고 어렵고 낯설기만 했던 젠더거버넌스 활동!(지금도 여전히 어렵기는 합니다) 올해 처음 접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뒤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모두 존경스럽고 그 분들의 힘이 모여 세상이 조금씩 변하며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성인지 관점으로 행정을 바라보며 모니터링을 하고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힘을 내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행정의 도움도 절실하다고 느꼈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행정의 적극적인 힘이 보태어진다면 진정한 젠더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다음에 조금 더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 올해 젠더 거버넌스 활동은 지난해와 또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하여 뭔가 더 새롭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홍보물 살펴보기 같은 경우는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 생각지 못 했던 부분들을 동료 활동가들과 찾고 이야기 나누며 성별·계층·연령 등 모두가 평등함 속에서 소외된 부분들을 세심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켜보고 불편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목소리 높여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활동을 통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곳의 필요성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가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러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노동자들도 살펴야한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실된

성평등한 세상은 활동가들의 노력과 활동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명백한 정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행정인들 또한 젠더감수성을 갖고 젠더 거버넌스 활동가들과 협치해야 될 것입니다.

◆ 약자와 소수가 안전하게 배제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모두를 위한 곳임을 압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이런 느낌을 받고 싶다고 늘 생각했었고, 젠더 거버넌스 활동으로 그 시작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풀뿌리의 중요성은 늘 환기되지만 정작 그 풀뿌리의 역할을 누가 기꺼이 하고 있을까요? 성북구에서도 이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모임이 있었다는 것에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힘을 쏟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내 일같이 힘쓰는 동료들을 보면서 관의 태도에서 받았던 좌절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여성 및 젠더정책은 늘 지엽적으로 취급되면서 행정에서는 해도 그만, 안하면 그냥 좀 찝찝한 그런 영역입니다. 이러한 영역 자체에서 오는 불리함과 더불어 거버넌스라는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외피를 쓰고 일을 하려니 이중으로 더 어려웠던 듯합니다. 그래도 늘 그렇지만 우리는 또 희망을 찾습니다. 내년에도 부디 잘 이어지길 기원해봅니다.

◆ 올해에는 협조해주신 건강가정지원센터담당 주무관님과 센터 팀장님 두 분의 성의 있는 참여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만세! 반면 정말 행정의 현주소인가 싶은, 믿기 힘든 맥폴림이 있는 일도 있어서 이 점은 아쉽습니다.

◆ 개인적으로 3년 차.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위드코로나의 시대에 적응해야 할 마음가짐이 다소 장착된 올해, 젠더 거버넌스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완전 고무적인 상황으로 출발하며 기대가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학습과 토론까지 해가며 준비된 성북 젠더 거버넌스 팀에 비해 행정은 올해도

역시 소극적인 느낌이 있었고, 진행되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 일인데, 많은 상념이 스칩니다. 우리 시민 거버넌스팀 의 정성과 열의가 아름다운데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

◆ 젠더 거버넌스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성별영향평가표를 작성해야하는 것도 몰랐지요. 무엇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함께 한 젠더거버넌스 활동은 무엇보다 기존 멤버들의 열린 마음과 따뜻한 환대 덕에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 차에 얽매이지 않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성북구 안에서 소비, 유통되는 여러 이미지들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은 저에게 새롭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정상 가족을 강조하는 이미지,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하는 이미지 등을 비판하면서, 멤버들은 어떻게 하면 성북구가 다양한 가족 구성을 응원하고,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자치구가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성평등한 성북구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난해까지 봄봄을 중심으로 젠더 거버넌스를 수행하였는데 올해는 지역홍보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연령의 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만큼 생각과 경험의 공유 폭이 깊어지고 넓어진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이만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활동하시며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게 우리는 시작점보다 성장했고 이러한 성장은 민과 관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과 관이 어려운 점, 아쉬운 점을 함께 극복하여 내년에는 민과 관이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 협치의 관계로 나아가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6/25 멘토링



7/23 사전간담회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노사 분규 이슈와 관련하여, 본지에서는 노조와 시설장 양측 모두에게 입장과 주장을 보내 달라 요청드렸지만 노조로부터만 글을 받을 수 있었다. 시설장의 글은 다음 호여라도 실을 수 있길 기대하며 이번 호에는 부득이 노조의 글만 올린다.

안녕하세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11일 (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하나, 사회복지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며 건 강한 사회복지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와 내 동료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 낸다.

하나,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복지계에 만연해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불균형적인 현재 구조를 균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행동하며 견제한다.

하나, 사회복지계 노동환경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현 장의 노동조합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 또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대하고 행동한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이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순응했습니다. 이상하지만 원래 그런 거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맞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의 구조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정성 들여 일할 수 있는 현장, 일하고 싶은 현장을 만들어간다면 더 많은 좋은 동료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개인이 하기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연대라는 큰 힘으로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기를 기대했습니다.

◆ 사회복지사는 노동조합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사도 노동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고 싶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활동을 저해하는 일들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조합원이라고 해서 우리 업무에, 조직의 운영에 해가 되는 것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과 발언들이 지속되었습니다.

◆ 교섭 지연과 사용자성 부정에서 시작된 투쟁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성실교섭을 진행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

던 그 말을 현실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2020년 6월 3일부터 2021년 2월 23일까지 266일의 투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다다릅니다. 교섭을 지연시키며 노동조합 비난, 조합원 차별, 나아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신청했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다시 교섭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어려움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함께 보완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결의에 노-사 모두 동의하며 합의하였습니다.

◆ 단체협약 이후. 우리의 신뢰는 앞으로 서로가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협약을 잘 지키면서 신뢰를 다시금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교섭 위원으로서 결국 서명하지 않은 시설장은 이후에도 본인의 업무인 기관 운영 총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지속했습니다.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들, 합의한 협약을 흠집 내기 위한 시도들, 노동조합의 활동을 저지하는 행위들,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고 비하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들이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조직의 운영에 방해를 하는 사람은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조직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합당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관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 해당 사항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 신뢰가 무너진 지금, 위탁 반납 결정의 원인과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현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은 지난 9월 16일 2021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반납 건을 결의하였고, 지난 9월 말 경 성북구청과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 통보하였습니다. 9월에 진행되었던 3분기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재단의 위탁 반납을 공지하니 한 운영위원은 “노조 때문이죠?”라고 했고 또 다른 운영위원은 대체 “노조가 왜그랬냐”라고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조합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공지했던 운영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재단의 내부 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기장복지재단이 위탁을 반납한 이유는 노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기간 동안 위탁운영을 진행하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당연합니다. 큰 재단이 그것을 멈춰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으나 모두가 어찌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현실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의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함께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복지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이전의 선배들이 힘들게 이룬 노동조건을 지키고 개선할 뿐 아니라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 등을 바로잡아 우리 자신과 이용자가 공공성을 권리로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지역주민에게 주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는 주체성이 부족하여 기존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행과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그 너머 이용자, 주민의 권리까지 찾는 활동입니다. 정릉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발현하며 정릉의 색을 담은 지역사회 복지실천을 지속하는 환경을 지켜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의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jnlaborunion/222046938733>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정릉에선 코로나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론장이 열렸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죠. 공론장을 통해 뭐라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해 가을 가칭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준비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드디어 2021년 2월 50여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여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국제적 연대를 해오며 전국 단위의 기후위기 활동을 해온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보다 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매달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에 지역단위의 기후위기극복 캠페인을 벌이고 (아래 포스터 참고), 지구의 날, P4G 반대 행동 등 전국단위의 기후위기 극복 행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사오니, 기후위기가 걱정인 분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무언가라도 함께 하고픈 분들은 언제든지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7266-4705로 연락주세요.

